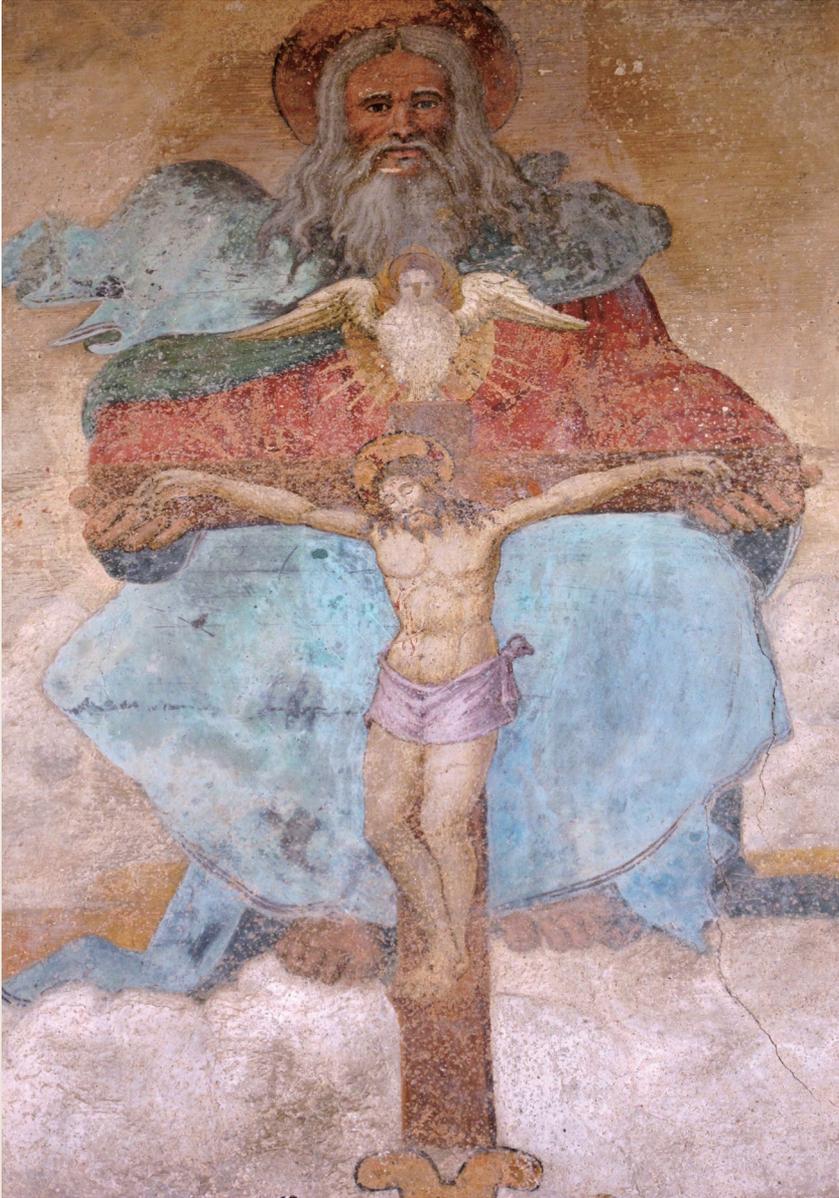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obo.or.kr



## † 오늘의 전례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 시려는 것이다.”

(요한 3,16-18 참조)

삼위일체의 도리는 사람의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아득한 신비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능을 뛰어넘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주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영원한 사랑에 함께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드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산 가리메로 성당 천장화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탈출 34,4ㄱ-6,8-9

**제2독서** 2코린 13,11-13

**복 음** 요한 3,16-18

**입 당 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화 답 송**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친다.



##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정호 예로니모 신부 | 교구 사회복지국장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믿는다고 30년 살아 왔지만, 무늬만 하느님 찾았지, 마음에는 하느님이 없고 나만 도사리고 앉아 있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느님이 알아서 챙겨 주시리라고 굳게 믿으며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실 새 없이 가슴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항상 십자가는 고통 보다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거친 부활 보다는 죽음도 변민도 고통도 없는 화려하고 편하고 쉽고 내가 즐겨하는 것만이 신앙의 열매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코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 항상 희망과 사랑과 격려의 말씀으로 신바람 나고 행복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냥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아픔이 감추어져 있고, 끊임없는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하고,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함을 인내해야 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자존심을 억눌러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고통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1독서에서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창세기 34,9) 라고 모세가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느님의 사랑과 성자의 우리를 위한 구원사업과 성령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여 죄로부터의 해

방, 물질로부터의 해방,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과 인간관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 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3, 16)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겪으시어 죽음을 당하시어, 당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우리를 화해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통한 구원으로 초대 받았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품게 되어 나약함과 애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하느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애절하게 기댈 등이 있고, 넓은 가슴을 가진 예수님께 포근히 안길 수가 있고, 성령의 따뜻하고 온화한 온기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7)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주교님, 볼리비아에 파견 나온 김동진 제멜로 신부입니다. 성주간 동안 일어난 한국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 볼리비아에서도 많은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주간 동안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코차밤바를 잠시 떠나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상 로메리오 본당에서 성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주교님께서 한번 방문하셨고 한국에 있을 때 주교님과 다른 선배 신부님들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어 한창 기대에 부풀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서 느낀 성주간은 제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 교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별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과 그들의 토착화되고 아주 흥미로운 전례들 모두가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지만 나누어 먹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교회에 넘쳐나는 아이들도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충분하고도 남을 동기부여를 제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보내주신 대주교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 산타 크루즈, 엘 살바도르와 이쎬 노르테에서 도시 빈민 사목으로 하는 선배 신부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한 할머니 집이 침수 되자 우리 교구 선배 신부님들과 함께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오염된 물을 맨 손으로 퍼냈는데, 이 쪽 지방 사람들도 하기 싫어해서 기피하고 도움을 주기를 꺼려하는데 우리 한국인 사제들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물을 퍼내고 할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은 정말 영상으로 찍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주교님, 부활의 기쁨을 지구 반대편에서 전하며 어느 곳에 있든 대구대 교구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주교님과 선후배 사제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김동진 제멜로 신부 올림



## 단순하고 우직한 믿음의 열매

서석봉 안드레아(? - 1815)의 순교이야기



서석봉 안드레아  
(? - 1815)

똑똑하고 많이 배워야만 신앙도 깊어질 것이라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교리지식은 깊지 않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사에 나오고, 성당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빠지지 않고 나와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 왜 마음이 잔해올까? 그것도 부부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서석봉 안드레아는 구성열 바르바라와 부부이며, 최봉한 프란치스코의 장인이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 언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훗날 교우들은 그를 '손골 박씨의 외조부'로 전해왔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경상도 청송 노래산으로 이주하여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1815년의 부활대축일에 밀고자를 앞세우고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경주 관장은 안드레아에게 갖은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배교를 강요하였지만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의 우직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경주 관장은 안드레아를 대구 감영으로 이송토록 하였다. 아내와 사위 그리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대구로 이송된 안드레아는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지만 백절불굴의 항구심으로 참아내면서 신앙을 고수하였다. 당시 대구 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정에 올렸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쉽게 몇 구절 밖에 못 외우지만 깊이 미혹되어 뉘우칠 줄 모릅니다. 혹 엄한 형벌을 주기도 하고 혹 알아듣도록 타이르기도 했으나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 한 번 죽기로 결심하여 완고하기가 목석과 같았습니다. 그 죄상을 논하건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대구 감영의 옥에 갇힌 교우들은 한결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시련을 견뎠다. 감옥에 갇혀 문초를 당하는 동안 그들이 보여준 변함없는 평온함과 고요함 그리고 화목함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안드레아는 1815년 11월 사형을 언도 받은 후 아내보다 먼저 옥에서 순교하였다.

순교자 서석봉 안드레아님! 저희도 혼돈스러울 때마다 오히려 단순하고 우직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빌어주소서. **강문**



## 함께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비롯해 갖가지 과일들이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사람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노라 한 것이지요.

앞 다투어 뛰어가리라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입 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킁킁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누구든 일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주려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라고 묻자 아이들은 “UBUNTU”라며 합창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UBUNTU”는 아프리카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필문**



### 금주의 성인

6월 15일	성 둘라(순교자, 310년), 성 란델리노(수도원장, 686년경), 성 모데스토(순교자, 300년경) 성 바르도(주교, 마인츠, 1053년), 성녀 베닐디스(순교자, 코르도바, 853년) 성 비토(순교자, 300년경), 성녀 엘리이다(동정녀, 스텔라베르그 1250년) 성녀 제르마나 쿠쟁(동정녀, 목동, 피브락, 1579~1601년), 성녀 크레센시아(순교자, 300년경)
6월 16일	성녀 루갈다(수녀, 신비가, 에비에르, 1182~1246년), 성 벤노(주교, 마이센, 1106년) 성 아우렐리아노(주교, 아를, 551년), 성녀 올리타(순교자, 타르수스, 304년) 성 퀴리코(순교자, 타르수스, 304년)
6월 17일	성녀 테레사(수녀원장, 포르투갈, 1250년), 성 베사리온(은수자, 이집트, 4세기말경) 성 아비토(수도원장, 미시, 530년), 성 히메리오(주교, 크레모나, 560년)
6월 18일	성녀 마리아(동정순교자, 8세기), 성 아만도(주교, 보르도, 431년) 성녀 엘리사벳(수녀원장, 쇼나우, 1129~1164년), 복녀 호산나(동정녀, 만투아, 1449~1505년)
6월 19일	성 테오다토(주교, 364년), 성 로무알도(은수자, 수도원장, 951~1027년) 성녀 율리아나 팔코네리아(설립자, 1270~1341년), 성 제르바시오(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성 프로타시오(순교자, 밀라노, 2세기경)
6월 20일	성 고반(순교자, 670년경), 복녀 미첼리나(과부, 페자로, 350년) 성 바노(주교, 테루안, 710년), 성 실베리오(교황, 순교자, 538년) 성 아달베르토(대주교, 마그데부르크, 981년), 성녀 플로렌시아(수녀원장, 636년)
6월 21일	성녀 데메트리아(동정순교자, 4세기경), 성 랄프(주교, 부르주, 866년) 성 레우프리도(수도원장, 738년),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수사, 신학생, 1568~1591년) 성 에우세비오(주교, 순교자, 사모사타, 379년)



### ■ 계산주교좌성당 견진성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8일(일) 오후 2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98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 ■ 5대리구 소람상담실 축복식

교구 소람상담실(소장 김중섭 토마스 신부) 5대리구 상담실 축복식이 5월 23일(금) 오전 11시 구미 가톨릭 문화관 내 소람상담실에서 5대리구 주교대리 김철재(바오로) 신부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 2014 세계평화안보 문학축전



6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2014 세계평화안보 문학축전'에 대구대교구 학생주부 기자단과 가톨릭청소년 문학동아리 학생 10명이 참가하였다. 일정 중에 열린 백일장에서 만춘성당 중등부 1학년 박세울 다니엘(경신중)군이 국무총리상(2위)을 수상하였다.

### 다시 한번



##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16일(월) 10:30 범어성당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	6월 20일(금) 19:30 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소강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6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21일(토) 10:00 월성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6월 16일(월) 11:00 수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6월 21일(토) 11:00 성모당
구미지역 유아,초중등교사들을 위한 미사	6월 18일(수) 19:30 신평성당	평화미사	6월 21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9일(목) 10:00 평화성당	한중(韓中) 천주교 친선협회 월례미사	6월 21일(토) 18:00 계산문화관

### 성소 | 피정

#### 수원생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6.22(일) 14:00, 수원 본원  
문의: (010)8833-8107

####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6.20(금)~22(일)  
장소: 성심교육관,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명자 카타리나, (010)4515-1114

####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Fiat 수도생활 체험 피정

기간: 6.28(토)~29(일)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 / 2만 원  
문의: (010)8920-9423

#### 109차 대구 선택 주말

기간: 7.11(금)~13(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남녀신자, 예비자(선착순 50명)  
문의: 김 하상바로, (010)4244-0264  
<http://cafe.daum.net/daeguchoice>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7.18(금) 17:30~20(일)

4박 5일: 7.14(월) 14:00~18(금)  
8박 9일: 6.23(월) 14:00~7.1(화)  
에니어그램: 6.27(금) 15:00~28(토)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 교육 | 모집

#### 성모기사회 (7080 정기 모임)

미사: 6.22(일) 14:00  
장소: 끈뎀푸알프란치스코수도원 2층 경당  
문의: (070)4266-0047

Show Bible : 모세  
성경 속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기간: 6.18~7.16(매주 수) 19:00~21:00  
장소: 바오로팔서원 / 청년: 2만 원  
문의: 양체사리아 수녀, (010)2503-5185

####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7.19(토)~8.16(토)  
대상: 초4~고3(선착순: 50명)  
문의: 656-6655(ARS 4번)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 바로 몬테소리 20주년 기념 학술제

일시: 7.26(토) 9:00~15: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장소: 7.12(토)까지,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http://pmi.daegu.kr>

#### 제주 성이시돌젊음의집 가족캠프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기간: 7.25(금)~27(일) / 29(화)~8.1(금)  
8.2(토)~5(화) / 가족 8.7(목)~10(일)  
주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  
문의: (064)796-7711

####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총 264세대 1,000명상  
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280-1500  
<http://www.marisstella.or.kr>

####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8.22(금)~9.1(월) 10박 11일  
장소: 이탈리아, 튀니지, 스페인, 프랑스  
비용: 내측 538만 원, 오션뷰 558만 원  
발코니 588만 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http://www.cttour.org)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추외과>  
적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적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새하늘 새망을 여는  
신자가정을 위한 **빛** 중립 월간지  
월간 '빛'은 다양한 모임과 선교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053)252-5392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ستراليا)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아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송원학원옆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용,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페나)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동서도로연수원**  
(방문도로연수)  
주행에서 주차까지  
100% ^신자우대^  
최옥(베드로) 박상우(바로로)  
053)766-1888 서현숙(모니카)

**JINSUNG** 건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이 중 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행사 | 모임**

**제3회 한국 농아인의 날 행사**  
 일시: 6.22(일) 10:00 / 미사 11:00  
 미사집전: 조환길(타대오) 대구교  
 장소: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  
 문의: 청각장애인선교회, 254-3423

**전레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6.16(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레꽃꽂이연구회

**성요셉성당 성전건축기금마련  
 풍기인건 판매**  
 기간: 6.1(일)~7.15(화) / 토, 월 제외  
 매일 11:00~15:00 / 주일 12:00까지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문의: (010)9509-7755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일장: 작은음악회 등)**  
 출발: 6.28(토) 9:00 계산성당 / 2만 원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참조: www.dgpbcc.co.kr, 단체신청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251-2610

**교육 | 모집**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교구 복음화 학교 기초과정 개설**  
 일시: 7.5(토),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구역장, 반장, 단체장  
 수강료: 1인 1만 5천 원(점심제공)  
 신청마감: 7.1(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신앙특강**  
 일시: 6.21(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 5천 원  
 주제: 창조주 그리고 창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강사: 정홍규(아우구스티노)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전통차연합회 회원 모집**  
 월례회: 매월 3째 토, 교구청 한옥 11:00  
 대상: 봉사하실 분  
 문의: (010)6716-5262 / (010)6411-1672

**스페인어 초급, 중급반 모집**  
 개강: 7.7(월) 중급, 8(화) 초급  
 수강료: 10만 원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관덕정 주관 7월 성지 순례**  
 일시: 7.20(일), 서울대교구 절두산성지  
 신청: 6.18(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청소년 진로캠프 1차, 2차 특강**  
 1차 초등4~6학년: 7.19(토)~20(일)  
 2차 중등1~2학년: 8.30(토)~31(일)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참가비: 20만 원(선착순 40명)  
 문의: 여성교육관, 254-6115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가톨릭푸름터 사무원 채용(여)**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이상(만25~35세)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마감: 6.23(월), 문의 : 764-8537  
 접수: gglade@hanmail.net

**종독가정치유 맞춤형토탈케어서비스**  
 대상: 약물·도박·인터넷·게임중독 등  
 내용: 방문상담, 치료연계, 위기개입 등  
 문의: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638-3778 / 638-877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확장이전**  
 보건복지부 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5.27(화)부터 신축 건물인 테레사관 9층으로 확장·이전하여 고위험 신생아 및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와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윤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새로운 100년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성모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3일  
 출발일 : 07월 29일(1차)  
 08월 05일(2차)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프렐레(유스티노)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용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름리스 맞춤형 / 범어동 경신교 입구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콕앤신웍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콕동식(아우구스티노)  
 교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맞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릴리)  
 http://www.ksnose.com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메오로) 011-514-3855**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건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과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